



초등학생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인식*

김 명 희¹⁾

1)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

Parent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Smoking*

Kim, Myoung Hee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and attitudes of parents of 5th and 6th graders toward own children smoking.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766 parents of 5th and 6th graders in 11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parents' recognition of harms to their own children cause by smoking, factors which influence their children to smoke, and parental supportive strategies to prevent smoking. **Result:**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if their children were smoking was 94.8%, while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 answered that they knew that their children were smoking was 3.5%. Only 30% of parents had actually spoken with their children about the dangers of smoking. The mean parental recognition of the dangers of smoking was 3.16 points. Parental strategy for preventing and prohibiting smoking with the higher mean scores included forbidding children from entering bars and nightclubs which had the highest scores at 3.55 points; forbidding the sale of cigarettes to children was next at 3.54 points. **Conclusion:** To prevent children from smoking, the role and attitude of parents is crucial. Bu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role of parental guidance in preventing underage smoking was insufficient and under appreciated. Therefore, mor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on preventing underage smoking are essential for parents.

Key words : School age, Parents, Smoking, Awareness

주요어 : 초등학생, 부모, 흡연, 인식

* 이 논문은 2005년도 세명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교신저자 : 김명희(E-mail: mh1352@semyung.ac.kr)

투고일: 2007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4월 1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young 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San-21, Sinwoul-dong, Jecheon-city, Chungbuk 390-711, Korea

Tel: 82-43-649-1352 Fax: 82-43-649-1352 E-mail: mh1352@semyung.ac.kr

서 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률 1.2%와 흡연을 0.2%(National Youth Commission, 2004), 대구 지역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현재 흡연을 0.3%, 과거 흡연을 21.7%, 여학생의 현재 흡연을 0.1%, 과거 흡연을 4.6%(Lee, Park, & Han, 2000)라는 연구결과는 흡연 문제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예방 차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흡연은 습관이며 중독 행위이기 때문에 한 두 번의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으며, 호기심에서 시작한 흡연은 규칙적인 흡연단계로 이행되므로(Mayhew, Flay, & Mott, 2000) 흡연문제는 금연 교육보다는 흡연예방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교육은 초등학교 시기가 적절함을 강조해왔다(Lee, 2000; Lee, 2002). 그리하여 다수의 연구가 초등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대상인 초등학생 중심의 예방프로그램을 고려해왔으나(Lee, 2000; Lee, 2002; Seo, 2001; Shin, 2000), 초등학생 흡연 예방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하 CDC)(1994)에서 제시하듯 학부모 및 가족을 학교 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금연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에 참여시키고, 학부모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자녀와 흡연 예방에 관련된 교육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은 그 실효성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실제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연구에서 연구 결과는 교육을 통해 흡연 지식의 변화는 쉽게 가져왔으나, 흡연태도와 행동 변화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Shin(200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1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흡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Seo(2001)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 예방 교육은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Lee(2002)의 연구에서 흡연예방교육은 5학년 초등학생의 흡연지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흡연에 대한 태도변화는 없었으며, Lee(2000)의 연구에도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적용은 초등학교 4학년생의 흡연지식의 증가는 가져왔으나 흡연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초등학생 흡연 예방에 있어 흡연 태도의 변화는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는데, Choi(2000)의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점수가 1점씩 낮아질수록 흡연 경험은 25.39배 더 높아진다는 결과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확립이 흡연 예

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흡연 예방에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와 더불어 행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는 태도변화까지 가져오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흡연예방교육 연구 결과에서 보듯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흡연 문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여 자녀 흡연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려된다. 발달에서 학령기인 초등학생 시기는 자신의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 자신들과 자주 접촉하는 성인들, 특히 부모의 행동과 신념이 중요하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초등학생의 흡연 예방 요인으로서 부모 흡연 여부는 자녀의 흡연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으며(Jackson & Henricksen, 1997), 부모들이 금연을 통해 자녀에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금연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흡연 예방에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가 꼭 금연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 흡연에 대해 부모가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 또한 자녀의 흡연의 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다(Anderson et al., 2002).

Jackson & Henricksen(1997)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흡연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면 자녀의 조기흡연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자녀 흡연의 시작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하였고, Fearnow, Chassin & Presson(1998)은 부모가 자녀의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자녀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녀의 흡연 예방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 흡연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 흡연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과 자녀 흡연 예방에서 부모는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생 흡연에 있어 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와 인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여 초등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부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녀의 흡연 관련 특성(자녀의 흡연율,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 자녀 흡연의 원인, 흡연에 대한 대화 여부 및 대처방법)을 확인한다.
-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흡연의 해로움 정도를 확인한다.
-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 학부모가 지지하는 자녀의 금연 및 흡연 예방 전략에 대해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J시 11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년 학급 수에 비례하여 각 학교의 학급수가 2개 이하이면 학년별 한 학급, 3개 이상이면 학년별 2학급을 무작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9월 1일에서 10월 30일이었으며, J시 11개 초등학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각 학교의 선정된 학급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학부모에게는 질문지 내용에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시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글을 첨부하여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가정에서 학부모 중 한 명이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부모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동봉한 봉투에 밀봉하여 학생을 통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반송하였고, 연구 조사원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900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858개가 회수되어 95.3%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92개를 제외하고 766개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조사내용 및 연구 도구

● 자녀의 흡연 관련 특성

자녀의 흡연 관련 특성은 National Youth Commission(2000)의 청소년 흡연 실태 및 금연의 해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내용 중, 자녀의 흡연율,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 자녀 흡연의 원인, 흡연에 대한 대화 여부 및 대처방법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흡연 경험률,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 자녀 흡연의

원인, 흡연에 대한 대화 여부 및 대처방법에 대해 각 한 문항씩 조사하였으며, 이 중 자녀와의 흡연에 대한 대화 여부는 '예', '아니오'로 확인하였고, 자녀 흡연시 대처방법은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자녀가 흡연을 하는 경우 혹은 흡연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우선적인 대처 방법 3가지를 선정하여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흡연의 해로움 정도

초등학생의 흡연이 자녀에게 주는 해로움에 대해 부모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Nho(2001)가 개발하여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은 10개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해로움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항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8이었다.

●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가 인식한 자녀 흡연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Nho(2001)가 개발하여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은 11개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별 자녀 흡연 영향정도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 부모가 지지하는 자녀의 금연 및 흡연 예방 전략

부모가 자녀 흡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어떤 부분에 지지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Nho(2001)가 개발하여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은 17개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환경(정부, 대중매체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의 흡연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 흡연 해로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위하여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66)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 ± SD
Relation with children	Father	292 (38.1)	
	Mother	474 (61.9)	
Child's gender	Male	343 (44.8)	
	Female	423 (55.2)	
Child's grade	5th grade	387 (50.5)	
	6th grade	379 (49.5)	
Mother's age	Under 30	4 (0.5)	39.07 ± 3.81
	31-40	534 (69.7)	
	41-50	213 (27.8)	
	Over 51	6 (0.8)	
Father's age	Under 30	2 (0.3)	41.82 ± 3.77
	31-40	287 (37.5)	
	41-50	450 (58.7)	
	Over 51	14 (1.8)	
Marital status	Married	718 (93.7)	
	Other	48 (6.3)	
Mo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06 (13.8)	
	High school	523 (68.3)	
	Over college	127 (16.6)	
Father's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69 (9.0)	
	High school	417 (54.4)	
	College or above	265 (34.6)	
Family income (unit: 1,000 Korean won)	Under 1,000	80 (10.4)	2,635.5 ± 202.28
	1,010 - 2,000	240 (31.3)	
	2,010 - 3,000	195 (25.5)	
	3,010 - 4,000	62 (8.1)	
	4,001 - 5,000	29 (3.8)	
	Over 5,010	36 (4.7)	
Mother practices religion	Yes	549 (71.7)	
	No	217 (28.3)	
Father practices religion	Yes	462 (60.3)	
	No	304 (39.7)	
Mother's job	Yes	352 (46.0)	
	No	414 (54.0)	
Father's job	Yes	757 (98.8)	
	No	9 (1.2)	

* Questions left unanswered excluded

대상자의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38.1%(292명), 어머니가 61.9%(474명)로 어머니 응답자가 많았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44.8%(343명), 여자가 55.2%(423명)였고, 자녀의 학년은 5학년이 50.5%(387명), 6학년이 49.5%(379명)였다.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에서 59세까지였으며, 평균 39세였고, 31-40세 사이의 분포가 69.7%(534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나이는 23세에서 61세까지였고, 평균 41세로 41-50세가 58.7%(450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는 93.7%(718명)가 결혼 상태였고, 동거, 재혼이 각각 1.0%(8명), 별거가 0.5%(4명), 사별이 1.6%(12명), 기타가 2.0%(15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8.3%(523명)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학력도 고졸이 54.4%(417명)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101-200만원 사이가 31.3%(240명)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부터 2,2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263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종교는 71.7%(549명)가 있었고, 아버지는 60.3%(462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46.0%(352명)가 직업이 있었고, 아버지는 98.8%(757명)가 직업이 있었고, 1.2%(9명)는 무직이었다<Table 1>.

자녀의 흡연 관련 특성

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흡연 경험은 대다수인 94.8%(726명)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3.5%(27명)는 자녀의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흡연을 묻는 문항에는 0.1%인 1명이 현재흡연을 한다고 하였다. 흡연 경험자의 첫 흡연 시기는 4학년이 22.2%, 5학년이 7.4%, 6학년이 11.1%였고 기타가

<Table 2> Characteristics of own children smoking (N=766)

Characteristics	Category	N (%)
Have tried smoking	Yes	27 (3.5)
	No	726 (94.8)
	I don't know	13 (1.3)
Current smoker	Yes	1 (0.1)
	No	752 (98.2)
	I don't know	5 (0.7)
Initial smoking experience	4th grade	6 (22.2)
	5th grade	2 (7.4)
	6th grade	3 (11.1)
	Other	1 (3.7)
Attitude of parents toward own children smoking	Never	658 (85.9)
	1-2 times can be possible out of curiosity, but it shouldn't be continued.	88 (11.5)
	It's okay to smoke if it doesn't harm others	5 (0.7)
	Everything relies on children	8 (1.0)
	Other	7 (0.9)
Concerns about own children smoking	Children's misconduct	173 (22.6)
	Physical harm	391 (51.0)
	Lowering of the school grades	4 (0.5)
	Mental harm	58 (20.6)
	Problems with the opposite sex, Sexual problem	7 (0.9)
	Other	13 (1.7)
Discussed smoking with children	No	524 (68.4)
	Yes	230 (30.0)
Sought outside counseling due to own children smoking	No	649 (84.7)
	Yes	5 (0.6)
Necessity of outside counseling regarding own children smoking	It's necessary	255 (33.3)
	It's not necessary	245 (32.0)
	It's not considered	203 (26.5)

* Questions left unanswered excluded

3.7%였다.

부모의 자녀 흡연에 관한 태도에서 흡연은 절대로 안된다 가 85.9%로 가장 많았고, 1-2회는 호기심으로 할 수도 있으나 지속은 안 된다는 11.5%,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면 흡연이 가능하다가 0.7%,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김이 1.0%, 기타 0.9%로 나타났다.

자녀가 흡연할 경우 부모들의 걱정은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51.0%)이 신체적 해로움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 청소년 비행 22.6%, 정신건강의 해로움이 20.6%, 이성문제, 성문제 0.9%, 성적 저하가 0.5%, 기타 1.7%로 나타났다.

부모가 흡연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해본 경험은 68.4%는 대화한 적이 없었고, 30.0%는 대화한 적이 있었다. 자녀 흡연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도움을 받은 경험은 84.7%가 없었고, 0.6%는 외부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자녀 흡연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3.3%가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32.0%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Table 2>.

자녀가 흡연할 경우 부모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11개의 보기 중 대처방법의 우선순위를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자녀가 흡연할 경우 부모의 대처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피우는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41.4%), 타일러서 피지 말라고 하는 것(25.7%)이 다수였다. 두 번째 우선순위 역시 타일러서 피지 말라고 하는 것(34.7%)과 피우는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22.5%)이 많은 대처 방법이었다. 세 번째 대처 방법의 우선순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중 가장 다수의 의견은 18.3%의 부모가 다시는 못 피우게 체벌을 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함(11.4%), 상담기관에서 상담함(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자녀 흡연의 해로움에 관한 인식

학부모가 인식한 자녀 흡연의 해로움은 전체 평균 평점 3.16점으로 부모들은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able 4>.

문항별로 보았을 때 신체적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와 정신건강에 해로움이 평균 3.40으로 가장 높았고, 암 유발 가능성이 3.35, 학업에 나쁜 영향이 3.31점으로 이 부분을 더 해

<Table 3> The parents' method of handling own children smoking

(N=766)

Method of handling	Priority 1 N (%)	Priority 2 N (%)	Priority 3 N (%)
Say nothing	13 (1.7)	6 (0.8)	15 (2.0)
Advise them not to smoke	197 (25.7)	266 (34.7)	60 (7.8)
Tell them to smoke, but not to much	5 (0.7)	20 (2.6)	45 (5.9)
Have a conversation about the child's reason for smoking	317 (41.4)	172 (22.5)	33 (4.3)
Physical punishment	23 (3.0)	28 (3.7)	140 (18.3)
Consult school guidance counselor	10 (1.3)	50 (6.5)	87 (11.4)
Consult religious authority	5 (0.7)	6 (0.8)	18 (2.3)
Consult a non-smoking authority	2 (0.3)	13 (1.7)	49 (6.3)
Make inquiry to counseling organization	8 (1.0)	15 (2.0)	74 (9.7)
Seek the guidance of doctor or psychiatrist	2 (0.3)	10 (1.3)	25 (3.3)
Other	2 (0.3)	17 (2.2)	19 (2.5)

<Table 4> The parents' recognition of the harms of own children smoking

(N=766)

Items	Min. - Max.	Mean ± SD
Total	1.7-4.0	3.16 ± 0.45
Influences to physical development	1-4	3.40 ± 0.57
Possibility of causing cancer	1-4	3.35 ± 0.57
Possibility of abusing alcohol	1-4	3.16 ± 0.63
Possibility of abusing drug	1-4	3.08 ± 0.66
Leads to bad conduct	1-4	3.20 ± 0.60
Influences school life	1-4	3.31 ± 0.59
Causes problems with the opposite sex	1-4	2.96 ± 0.72
Harmful to mental health	1-4	3.40 ± 0.56
Worsens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1-4	3.03 ± 0.70
Influences religious life	1-4	2.72 ± 0.82

롭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행행동 야기 3.20점, 술 사용의 가능성 3.16점, 약물 사용의 가능성 3.08점, 부모 자녀 관계의 악화 3.03점 순이었으며, 종교 생활에 나쁜 영향은 2.72점, 성문제 야기는 2.96점으로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 다른 해로움보다 적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로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녀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 직업,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자녀가 여자일 때 부모들은 흡연이 자녀에게 더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에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가정의 월수입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에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을시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자녀 흡연은 절대 안 된다는 경우가 기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보다 자녀 흡연의 해로움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of parents' recognition of the harms of own children smok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766)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 SD	F/ t	p
Child's gender	Male	3.11 ± 0.44	- 2.64	0.00
	Female	3.19 ± 0.45		
Mo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12 ± 0.48 a	3.60	0.04
	High school	3.14 ± 0.44 a		
	Over college	3.26 ± 0.42 b		
Family income (unit: 1,000 Korean won)	Under 2,000	3.10 ± 0.44 a	6.13	0.00
	2,010 - 4,000	3.22 ± 0.43 b		
	Over 4,010	3.23 ± 0.50 b		
Mother's job	Yes	3.20 ± 0.44	2.52	0.01
	No	3.12 ± 0.44		
Attitude of parents toward own children smoking	Never	3.19 ± 0.44	4.93	0.00
	Other	2.96 ± 0.41		

a, b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자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부모가 인식한 자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6>와 같다.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는 항목은 흡연 친구와의 어울림(평균 3.35점)이었으며, 대중 매체에서의 연예인의 흡연 모습 3.11점, 부모의 흡연 3.05점, 가족의 불화 3.04점, 대중매체의 담배 광고가 3.02점으로 평균 3점 이상을 나타냈다. 선생님과 불화는 2.46점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6>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wn children smoking (N=766)

Items	Min. - Max.	Mean ± SD
Association with friends who smoke	1-4	3.35 ± 0.59
Actors' smoking scene	1-4	3.11 ± 0.70
Parents' smoking	1-4	3.05 ± 0.62
Family conflict	1-4	3.04 ± 0.63
Cigarette ad in media	1-4	3.02 ± 0.71
Stress from school	1-4	2.80 ± 0.69
Trouble with parents	1-4	2.78 ± 0.70
Poor adaptation to school	1-4	2.76 ± 0.71
Low price of cigarette	1-4	2.76 ± 0.83
Conflict with friends	1-4	2.61 ± 0.73
Conflict with teacher	1-4	2.46 ± 0.75

부모가 지지하는 자녀 흡연 예방 및 금연 전략

학부모가 지지하는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해결 전략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규제가 3.55점으로 가장 지지적

이었으며,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규제가 3.54점, 담배 자판기 없애기 3.49점, 학교 건물에서의 흡연 금지 3.44점, 학교에서 흡연에 관한 규칙 강화 3.40점, 미성년자 금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3.38점, 대중매체를 통한 미성년자의 흡연 예방 광고 3.35점, 학교에서의 교육 3.33점, 가정에서의 교육 3.32점 순으로 자녀 흡연 예방 및 금연 해결 방법에 지지적인 점수를 보였다.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인 항목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알아서 금연이 2.56점, 미성년자에게 금연 껌이나 금연 접착제 판매에 대해서는 2.67점, 담배값 인상은 2.68점, 미성년자의 금연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 개입은 2.82점으로 중정도의 지지를 보였다.

논 의

초등학생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자녀의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학부모가 자녀 흡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흡연 예방 전략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흡연 경험률은 3.5%였고, 현재 흡연율은 0.1%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 대상과 동일 지역에서 Jecheon Public Health Center(2002)가 조사한 초등학생 5, 6학년 흡연 경험률 16.2%, 현재 흡연율 2.0%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결과이며,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흡연율 조사에서 흡연 경험률 11.9%, 흡연율 1.1%(Chung & So, 2003), 부산지역 초등학생 흡연 경험자 8.1%(Kan & Kim, 2000)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학부모들이 실제

<Table 7> The parental supportive strategies to prevent smoking (N=766)

Items	Min. - Max	Mean ± SD
Prohibition of underage children from bars and nightclubs	2-4	3.55 ± 0.54
Prohibition of selling cigarettes to underage children	1-4	3.54 ± 0.58
Removing cigarette machines	1-4	3.49 ± 0.61
Prohibition of smoking in school	1-4	3.44 ± 0.58
Strengthening the rules for not-smoking in school	1-4	3.40 ± 0.57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in underage smoking	1-4	3.38 ± 0.59
Preventative smoking campaign through the media	1-4	3.35 ± 0.65
School education	1-4	3.33 ± 0.54
Home education	1-4	3.32 ± 0.55
Establishment of non-smoking place within school area	1-4	3.21 ± 0.74
Preventative smoking campaign for children	1-4	3.18 ± 0.61
Parents education for prohibition of children smoking	1-4	3.15 ± 0.62
Civic organization's active intervention in underage smoking	1-4	3.11 ± 0.67
Religion's active intervention in underage smoking	1-4	2.82 ± 0.78
Increasing the price of cigarettes	1-4	2.68 ± 0.88
Selling nicotine substitute gum or stickers for not smoking	1-4	2.67 ± 0.82
Child chooses not to smoke	1-4	2.56 ± 0.91

자녀의 흡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이 자녀 흡연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 흡연예방 뿐 아니라 조기발견에도 주의를 기울여 습관화 이전에 조기지도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첫 흡연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점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적극적 흡연예방 지도는 필수적임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의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는 85.9%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11.5%는 1-2회 호기심은 허용했고, 아주 소수의 부모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면 가능하다고 하거나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기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흡연연구(Choi, 2000; Kan & Kim, 2000; Kang & Jang, 2003)에서 청소년의 흡연 동기의 가장 주된 요인은 호기심이었다. 호기심이란 정확한 지식이 없을 시 시도할 수 있는 행위로 볼 때 초등학교 시기부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은 중요하다. 또한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중매체나 가정에서 부모의 흡연 또한 같이 조절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호기심에 의한 흡연이 규칙적인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기에 흡연을 시작한 아동의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을 하기가 어려운 점(Eissenberg & Balster, 2000)을 감안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흡연의 조기발견 및 조기 흡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부모가 자녀흡연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용인하는 것은 자녀의 흡연 빈도를 높이는 요인(Mayhew et al., 2000)이므로 부모들이 이 점을 주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학부모가 자녀 흡연에 대한 해로움의 인식은 평균 3.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흡연이 자녀에게 주는 해로움은 충분히 인식하는 반면, 흡연과 관련하여 자녀와 대화를 해 본 경험은 30.0%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흡연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Lee(2003)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초등학교생을 위한 흡연 예방 교육에 48.0%만이 찬성하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생에게 흡연 문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초등학교 자녀의 흡연 문제는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듯 부모들이 자녀 흡연의 해로움은 충분히 인식하나 자녀 흡연 지도의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부모의 인식변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Park과 Lee(2003)의 연구에서 학부모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부모들은 초등학교생에게도 흡연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즉, 부모 교육은 부모가 자녀 흡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부모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 학력과 어머니 직업에 따라 흡연의 해로움 인식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여자인 경우 흡연이 더 해롭다고 인식하였고,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더 흡연을 해롭다고 인식하였으며, 자녀 흡연에 대한 태도가 절대 안 된다고 인식할 때 흡연의 해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Andersen et al. (2002)의 연구에서 자녀 흡연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태도가 자녀 흡연예방에 중요 변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인구사회학적으로 어머니 학력이 낮거나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은 특히 자녀 흡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가 필요한 집단으로 고려된다. 또한 흡연이 여자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롭고 안 된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부모 교육에서 어머니를 포함하여 흡연지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흡연 해로움의 인식이 클수록 흡연이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일 수 있으므로 부모 교육에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자녀 흡연 예방 및 금연 전략에서도 부모는 가정, 학교, 환경(정부, 대중매체 등)을 모두 지지하는 반면 미성년자 스스로 알아서 금연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는 부모 역시 흡연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 이상을 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초등학교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부모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들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규제 및 담배 판매의 규제는 정부나 시민단체, 학교만의 역할은 아니며, 가정 또한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고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들이 자녀의 흡연 예방 전략으로 지지하는 이 부분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된다.

자녀 흡연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학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흡연 할 경우 대체로 흡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체벌할 것이라 하였다. 이 결과는 Nho(2001)가 서울시의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부모들은 처음엔 대화로 하나 대화로 조절이 안 될시 전략적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체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흡연 문제에 좀 더 교육적이고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모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결론 및 제언

금연 운동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조기에 흡연 예방을 통하여 흡연을 습관화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활양식과 습관은 아동기에 형성되며, 초등학생 시기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이미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모를 참여시킨 프로그램은 미미한 편이다. 자녀의 흡연 예방에 있어 부모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흡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중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 결과 학부모는 흡연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 흡연 예방 및 금연 전략에 대해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환경(정부, 대중매체 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하나, 초등학생 자녀와의 흡연 대화는 적은 편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체계적인 흡연예방 지도는 미흡하다고 고려된다. 자녀의 흡연 예방 지도에 있어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며, 초등학생 흡연 예방지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연계된 통합적 프로그램이 흡연 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 흡연 관련 지도 및 대화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또 이런 대화는 자녀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 초등학생 흡연 예방을 위해 부모가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References

- Andersen, M. R., Leroux, B. G., Marek, M. S., Peterson, A. V., Kealey, K. A., Bricker, J. B., & Sarason, I. G. (2002). Mothers' attitudes and concerns about their children smoking: Do they influence kids? *Prev Med, 34*, 198-206.
- CDC (1994).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MMWR, 43*(RR-2), 1-18. Retrieved October, 5, 2005, from <http://www.cdc.gov/mmwr>
- Choi, H. Y. (2000).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n smok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ung, Y. S., & So, H. (2003).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n smok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3), 189-205.
- Eissenberg, T., & Balster, R. L. (2000). Initial Tobacco use episod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knowledge, future directions. *Drug Alcohol Depend, 59*, suppl, 41-60.
- Fearnow, M., Chassin, L., & Presson, C. (1998). Determinants of parental attempts to deter their children's cigarette smoking. *J Appl Developmental Psychol, 19*(3), 453-468.
- Jackson, C., & Henricksen, L. (1997). Do as I say: Parent smoking, antismoking socialization, and smoking onset among children. *Addict Behav, 22*, 107-114
- Jecheon Public Health Center (2002).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among Jecheon citizens an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Jecheon Public Health Center.
- Kan, K. A., & Kim, Y. H. (2000). A research on an actual state of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1), 51-59.
- Kang, K. A., & Jang, J. D. (2003). A survey on smoking of adolescenc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1), 51-59.
- Lee, E. H. (200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smoking preventive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 Lee, K. M., Park, J. Y., & Han, C. H. (2000). The dynamics among smoking,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family environment in primary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School Health, 13*(1), 85- 96.
- Lee, M. K. (2002). *The effects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moking by preventive education for the fifth grade student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Mayhew, K. P., Flay, B. R., & Mott, J. A. (2000).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smoking. *Drug Alcohol Depend, 59*, Suppl, 61-81.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0).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and promoting strategies in the year of smoking prohibition*. National Youth Commission.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4). *The result of the valuation of the preventative smoking campaign among youth*. Retrieved October, 10, 2005, from <http://www.nosmokeguide.or.kr/data>
- Nho, C. R. (2001). A study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eenagers' cigarette smoking. *J Korean Soc Child Welf, 11*(1), 33-60.
- Park, K. M., & Lee, C. W. (2003). Change of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wards smoking after smoking prevention program.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9*(1), 81-88.
- Seo, G. S. (2001). *The effect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smoking and self-esteem in the 5th and 6th graders of prim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Shin, Y. S. (2000). *Development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nd effectivenes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